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문화적 특징 - 부자유친 성정을 중심으로 -

최 인 재[†]

한국청소년개발원

이 연구의 주요한 내용은 한국문화에서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이라 볼 수 있는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 그리고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간의 관계를 근거로 문화적 특수성과 보편성에 따른 상담적용의 시사점을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은 고등학생 314명(남: 159명, 여: 15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자료처리 및 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WIN 11.0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프로그램인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4.0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부자유친성정과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와의 관계에서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자아분화와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부자유친성정 하위변인들이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와의 일체감 변인과 아버지의 헌신성 변인이 유의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고, 부자유친성정이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버지와의 일체감 변인만이 유의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분화의 하위변인들이 심리·사회적 적응관련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가족퇴행과, 인지 대 정서기능 변인이 유의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자유친성정과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완전매개모델이 부분매개모델이나 단순효과 모델에 비해 자료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부모-자녀관계, 부자유친성정, 자아분화, 문화심리, 정신건강

[†] 교신저자 : 최 인 재, 한국청소년개발원,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교총빌딩,
E-mail : jae713@hanmail.net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은 문화보편적으로 강조되는 요소이나 그 주요한 접근과 적용에 있어서는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서구문화에서의 부모-자녀관계는 자녀의 독립성과 개별성 그리고 자율을 강조하는 의식이 발달하였지만, 한국문화에서는 서구와 달리 부모-자녀간의 일심동체(一心同體)적인 동일체(同一體)의식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이 다(최상진, 2000).

흥미로운 점은 위와 같이 부모-자녀 동일체적 의식이 깊고 또한 그러한 의식이 결혼 이후에도 오랫동안 유지되는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를 서구의 개인주의(個人主義)적 이데올로기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상담이론의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부모-자녀관계는 지나치게 밀착(密着)되어 있으며, 융합(融合)되어 있는 역기능적이고 병리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정신질환이나 많은 심리·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자신의 독특한 개성과 독립을 추구하고, 강조하는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논리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위와 같은 해석은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한국문화에서는 개인주의문화와 달리 부모-자녀간의 친밀(親密)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개인의 심리적 발달과 건강

은 물론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을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개인주의 문화에서 강조하는 타인과 다른 독특한 '나'를 찾고 구성하기보다는,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조화를 강조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identity)을 찾고, 규정해 나가는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이고 관계 중심적인 인간관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최상진, 2000; Markus & Kitayama, 1991).

실제로 Tamura와 Lau(1992)는 동양의 문화권과 같이 가족구성원간의 화목과 친밀한 관계 유지가 강조되는 문화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문제가 미분화(未分化)에 기인한다기보다는 통합이나 연결이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대학생들과 독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적응에 대한 비교 연구를 실시한 김동직(1999)의 연구결과에서도 독일 대학생들의 경우 개별성이 관계성보다 심리적 적응을 더 많이 설명한 반면, 한국 대학생들은 개별성보다는 관계성이 심리적 적응에 보다 중요한 설명변인이라는 것을 밝힌바 있다.

결국 서구 개인주의 문화에서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은 그 문화에 적합한 가치관과 적응양식인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고유한 자아정체감(self-identity)을 확립하고, 자기실현(self-actualization)을 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원 가족으로부터의 물리적, 정서적으로 분리되었는지의 정도가 성숙의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다(Hsu, 1985).

반면 한국문화에서는 앞서 제시하였듯이 서구적 의미의 적응과정이 강조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적 측면이 강조된다. 따라서

1) 개인주의에서는 인류를 구성하는 요소가 국가나 계급 등의 사회적 집단이 아니라 분리 할 수 없고, 환원되지 않으며, 홀로 느끼고 행동하는 개인으로 본다. 또한 개인의 자유에 최상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없이 그 무엇(사회적 집단이나 자연적 집단)에도 소유되거나 종속되지 않는 속성을 지닌다(Laurent, 1993).

한국문화에서의 개인의 성숙지표와 적응정도는 자기절제와 타인 배려를 통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는지의 정도와, 개인의 권리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잘 수행하는가의 정도로 측정될 수 있다(김효창, 손영미, 박정렬, 최상진, 2000; 최봉영, 1996; Kim, Youn, & Choi, 2001).

여기서 타인과의 관계형성의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부모-자녀관계이다. 그리고 이 부모-자녀관계의 관계맺음의 형식과 과정 그리고 내용이 가족구성원, 더 나아가 사회적 관계로 확대된 것이 한국적 인간관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최상진, 2000).

한국의 가족관계 특히 부모-자녀관계는 일반적 사회관계와 구별되는 특수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는 효(孝)와 자(慈)라는 전통적 윤리규범에 의해 강하게 영향 받고 있다. 또한 혈육지정, 보은(報恩), 인간의 도리 등을 내포적 속성으로 한 부모간의 유친(有親) 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서구의 개인주의적 평등윤리 인간관계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박명석, 1993). 최상진, 김혜숙 및 유승엽(1994)도 한국문화에서의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을 “부자유친성정(父子有親性情)”²⁾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의 부

모-자녀관계는 부모와 자녀간의 자애(慈愛)와 효(孝)를 바탕으로 한 감정·의식 동일체적 친애관계라는 특징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이장주(2002)는 최상진 등(1994)의 부자유친성정 이론을 바탕으로 부자유친성정척도를 개발하였는데, 그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자아 개념이나 자아존중감 수준에 부자유친성정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분리와 독립이 발달의 방향이라고 보았던 서구의 성숙관에 대한 대안적 성숙관 모델의 원형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기능적인지 역기능적인지의 여부는 단지 부모-자녀관계의 외형적 틀인, 그 관계가 밀착되었느냐 아니면 분리되었느냐 하는 서구 상담이론의 일률적 잣대로 설명하고 진단 내려서는 안 됨을 시사한다. 그 보다는 부모-자녀 관계의 내용과 질을 살펴봐야 할 것이고, 또한 내담자가 살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중요시하는 가치나 신념의 기준에 근거하여 내담자의 부모-자녀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지녀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하겠다.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self-differentiation)와의 관계를 보면, 두 개념간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두 개념은 발달과정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로 Bowen(1976)의 자아분화 이론을 살펴보면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지적(知的) 기능이 정서적(情緒的) 기능에서 분화하여 자신과 타인 그리고 외부세계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지각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대인관계에서도 타인과 정서적 융합을 이루지 않아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스트레스에도

2) 먼저 ‘부자유친(父子有親)’이란 삼강오륜(三綱五倫)의 ‘부모자식간에는 친함이 있다’는 항목에서 차용하였는데, 말 그대로 ‘아버지와 아들간의 친함’이란 의미보다는 ‘부모와 자식간의 친함’이어야 한다는 관용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성정(性情)’이란 심학(心學)에서 마음의 구성요소 중 타고난 기질(性)과 이러한 마음의 발현(情)을 의미한다(금장태, 1998). 즉 부자유친성정이란 ‘부모자녀간에 존재하는 친밀한 마음과 그것의 발현’을 총괄하는 의미를 지닌다(이장주, 2002).

효율적으로 대처한다고 본다.

이러한 개념은 표면적으로는 서구적 가치관인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개별성 등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관계성의 측면도 동시에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Bowen(1971, 1978)은 자아분화에 대한 자신의 이론에서 체계이론(system theory)을 들어, 인간에게도 생물체계와 같이 개별화(individuality)와 동질화(togetherness)의 두 세력³⁾이 공존한다고 보면서, 자아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두 세력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또한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다른 많은 연구들에서도 부모와의 친밀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가족구성원간의 정서적 유대를 함께 나눌 때 부모와의 분리개별화나 자율성의 발달이 촉진된다(Campbell, Adams, & Dobbs, 1984; Greenberg, Seigel, & Lietch, 1983; Josselson, 1988)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측면은 부모-자녀간의 유대관계를 중시하고, 깊은 유대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찾고, 심리적 발달을 이루어 나가는 한국문화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아분화를 성숙의 측면으로 볼 때, 높은 성숙의 차원은 문화보편적으로 비슷할 수 있으나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 혹은 그 과정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문화적으로 서로 상이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아분화와 정신건강 그리고 역기능적인 행동 등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먼

저 Greene, Hamilton 및 Rolling(1986)은 그들의 연구에서 알콜중독, 정신분열, 우울, 성격장애 등을 보이는 장애집단이 정상집단보다 자아분화수준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Hoffman과 Weiss(1987)는 부모로부터 정서적 독립을 하지 못한 개인의 경우 부적응적 행동과 우울, 불안 및 대인관계에서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제시하였다.

자아분화와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와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분화 수준과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 우울, 불안, 적대감, 편집증 등의 정신건강과 높은 부적상관이 있음이 나타났고, 자아분화가 역기능적 행동의 변량을 설명하는 설명변량도 49%로 매우 높게 나타났(제석봉, 1989).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권미영(1993)은 그의 연구에서 자아분화수준이 낮을수록 부적응 증상 및 비행이 심하다고 보고하였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혜숙(1992)과 김보현(1999)의 연구에서도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편집증, 강박증, 우울, 적대감 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분화는 대학생할 적응(조명희, 박수선, 1999) 뿐 아니라 부부적응(고현선, 1995)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낮은 자아분화수준은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론 부부관계에서의 부적응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며, 또한 당대(當代)에서 만의 문제를 유발할 뿐 아니라 가족투사 과정을 통해 자녀들의 자아분화와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문화에서 부모-자녀관계의 문화적 특성인 부자유친성정이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와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그 시사점과 함

3) 개별화(individuality)의 세력은 유기체가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며, 개별적인 실체로 존재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며, 동질화(togetherness)의 세력은 타인의 인정과 집단에 소속되어 안정감을 누리려는 것을 말한다(Bowen, 1971, 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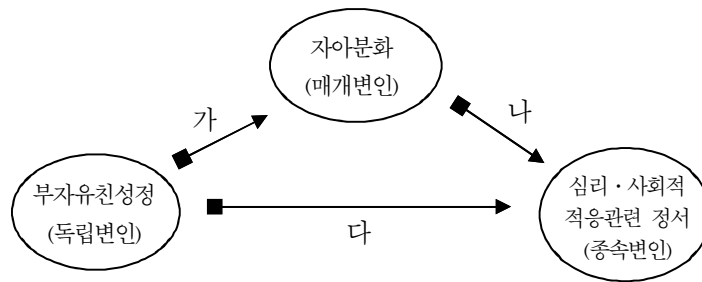


그림 1. 매개모델의 도식 및 연구모델

의를 경험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에서 개인의 적응에 중요한 변인으로 제기된 자아분화 개념을 부자유친성정과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와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상정함으로써 부자유친성정이 적응관련 정서로 가는 인과적 과정의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매개효과를 평가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mediator)에 대해 유의한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그림 1의 경로 ‘가’). 둘째,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대해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그림 1의 경로 ‘나’). 셋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대한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야 한다(그림 1의 경로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을 통제했을 때(그림 1의 경로 ‘가’와 ‘나’) 이전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대해 유의하던 영향력이(그림 1의 경로 ‘다’)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아야 한다(Baron & Kenny, 1986).

만일 네 번째 조건이 만족된다면 매개변인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full mediation effect)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은 매개변인이 통제되었을 때 그 효과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었지만 네 번째 조건

은 만족되지 않을 때 부분매개효과(partial mediation effect)가 있다고 볼 수 있다(홍세희, 2001). 또한 단순효과모델은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없이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가 각각 독립적으로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정한다. 어떤 모델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데, 있어 하나 이상의 모델이 자료에 적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안적인 모델을 설정하여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Breckler, 1990). 이 연구에서는 대안모델로서 부분매개모델(partial mediation model)과 단순효과모델(simple effect model)을 설정하여 완전매개모델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문화에서 부모-자녀관계와 자아분화 개념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며, 상담의 적용에 있어서도 문화 특수적 측면을 고려한 상담접근 방법에 대한 치료적 중재의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자유친성정, 자아분화 그리고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부자유친성정은 자아분화와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를 적절히 설명하는가? 또한 자아분화의 하위변인들은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를 적절히 설명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분화가 부자유친성정과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와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연구 대상은 서울, 강릉 그리고 동해 소재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 314명(남: 159명, 여: 15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16.60세(최소: 15세, 최고: 19세, $SD = .85$)였다.

그 이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빈도를 보면, 성장한 곳에 대한 응답에서 대도시 205명(65.3%), 중·소도시 92명(29.3%), 읍·면 단위 17명(5.4%)이었다.

측정도구

부자유친성정 척도

부모-자녀관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최상진(2000)의 '부자유친성정' 이론을 바탕으로 이장주(2002)가 제작한 부자유친성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7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응답한 결과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자유친성정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일체감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94였으며, 헌신성 요인은 .93으로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냈다.

부자유친성정의 하위척도인 일체감요인은 자녀가 부모에 대해 지각하는 자녀들에 대한 믿음과 지지의 정도를 나타내며, 헌신성요인은 부모의 헌신이나 희생의 정도를 의미한다.

자아분화 척도(Differentiation of Self Scale)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토대로 제석봉(1989)이 개발한 자아분화척도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고, 총 36개의 문항과, 5개의 하위요인(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의 통합,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으로 구성되어있다.

자아분화 하위요인 중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은 지적체계가 정서적 체계에서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며, 아의 통합은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압력을 받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의 신념과 생활 원리를 잘 견지하고 있는가의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가족투사과정은 부모의 미분화 특성을 특정자녀에게 투사하는 과정을 나타내며, 정서적 단절은 부모나 자기 자신의 과거로부터 가출, 고립(孤立), 부정(否定) 등의 방법으로 단절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족퇴행은 가정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족 구성원들이 역기능적인 갈등처리 방법으로 대처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자아분화의 Cronbach's α 는 .85이었으며, 자아분화의 하위변인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69~.85의 범위 내로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간이정신진단검사 척도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김광일, 원호택 그리고 김재환(1984)이 표준화한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 SCL-90)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9개 증상차원의 총 9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 상태가 심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위의 9개의 증상 차원 중 다른 차원보다 상담 장면에서 비교적 많이 접하게 되는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을 중심으로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의 수준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각 증상별 신뢰도 계수는 대인예민 .83, 우울 .89, 불안 .88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분석방법

자료처리 및 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WIN 11.0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프로그램인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4.0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으로 먼저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 변인들과 이론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자유친성정이 자아분화와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분화가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자유친성정과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검증은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해 분석하였다.

측정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일반 적합치(GFI: Goodness of Fit Index), 조정 적합치(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표준 적합치(NFI: Normed Fit Index), 비교 적합치(Comparative Fit Index: CFI), 추정오차의 평균(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지수 등을 사용하였다.

결 과

부자유친성정, 자아분화,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간의 관계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와의 관계에서 부자유친성정의 하위변인인 일체감, 헌신성과 자아분화의 하위변인인 정서단절, 가족퇴행 간에는 높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r=.45 \sim .67, p<.01$). 그리고 가족투사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r=.15 \sim .23, p<.01$).

다음으로 부자유친성정과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일체감과 대인예민($r=-.17, p<.01$), 우울($r=-.25, p<.01$), 그리고 불안($r=-.18, p<.01$)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헌신성과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와의 관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r=-.12 \sim -.17$).

마지막으로 자아분화와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자아통합과 대인예민, 우울, 불안 그리고 정서단절과 대인예민과의 상관관계를 제외한 자아분화의 하위변인들과 대인예민, 우울, 불안 등의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의 하위변인들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15 \sim -.31$).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가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와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에 대한 부자유친성정의 영향

부자유친성정의 하위변인들인 일체감과 헌신성변인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세분화하여 설

표 1. 측정변인간의 상관관계(N=314)

측정변인	1	2	3	4	5	6	7	8	9	10
1. 일체감	-									
2. 헌신성	.74**	-								
3. 인지정서	.09	.08	-							
4. 자아통합	.16**	.09	-.16**	-						
5. 가족투사	.23**	.15**	.31**	-.02	-					
6. 정서단절	.50**	.45**	.14*	-.05	.32**	-				
7. 가족퇴행	.67**	.64**	.19**	.19**	.21**	.52**	-			
8. 대인예민	-.17**	-.12*	-.25**	.07	-.15**	-.10	-.26**	-		
9. 우울	-.25**	-.17**	-.29**	.07	-.17**	-.21**	-.30**	.77**	-	
10. 불안	-.18**	-.15**	-.31**	.07	-.17**	-.22**	-.29**	.79**	.83**	-
평균	5.28	5.67	4.03	4.44	4.31	4.52	4.70	1.99	1.86	1.62
표준편차	1.06	.93	1.06	.92	1.24	1.40	1.07	.71	.70	.64

* $p < .05$ ** $p < .01$

명변인으로 하고 자아분화와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를 준거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하였

고, 다음으로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자아분화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남학생 집단($\beta = .57, p < .001$)이나 여학생 집단($\beta = .58,$

표 2. 부자유친성정이 자아분화와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에 미치는 영향

준거변인	집단	설명변인	β	R^2	ΔR^2	F
자아분화	남	부(父)-일체감	.57***	.32	.32	73.86***
	여	부(父)-일체감	.58***	.34	.34	77.45***
	전체	부(父)-일체감	.31**	.33	.33	
		모(母)-일체감	.19**	.34	.01	55.11***
		부(父)-헌신성	.16*	.35	.01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	남	부(父)-일체감	-.25**	.06	.06	10.69**
	여	부(父)-일체감	-.19*	.04	.04	5.62*
	전체	부(父)-일체감	-.28***	.05	.05	16.98***

* $p < .05$ ** $p < .01$ *** $p < .001$

$p<.001$) 모두 아버지와의 일체감변인이 유의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분화의 변량 가운데 각각 32%와 3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아버지와의 일체감, $\beta=.31, p<.01$, 어머니와의 일체감($\beta=.19, p<.01$) 그리고 아버지의 헌신성($\beta=.16, p<.05$) 변인이 유의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에 대한 부자유친성정 하위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남학생 집단($\beta=-.25, p<.001$), 여학생집단($\beta=-.19, p<.05$) 그리고 전체학생($\beta=-.28, p<.001$)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모두 아버지와의 일체감만이 유의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에 대한 자아분화의 영향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에 대한 자아분화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자아분화의 하위 변인들을 설명변인으로 하고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를 준거변인으로 하여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남학생들의 경우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가운데 가족퇴행($\beta=-.24, p<.01$)과 인지 대 정서기능($\beta=-.23, p<.01$)이 유의한 설명변인이었고, 여학생 집단의 경우도 남학생 집단과 같이 인지 대 정서기능, 가족퇴행 변인이 유의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가족퇴행($\beta=-.26, p<.001$)과 인지 대 정서기능($\beta=-.26, p<.001$)이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를 설명하는 유의한 설명변인들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이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의 전체변량을 설명하는 설명량은 각각 9%와 7%로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의 전체변량 가운데 총 1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유친성정과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측정모델의 검증

구조방정식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해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전에 먼저 관찰변인들이 적절한 요인구조를 갖는지를 파악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양병화,

표 3. 자아분화가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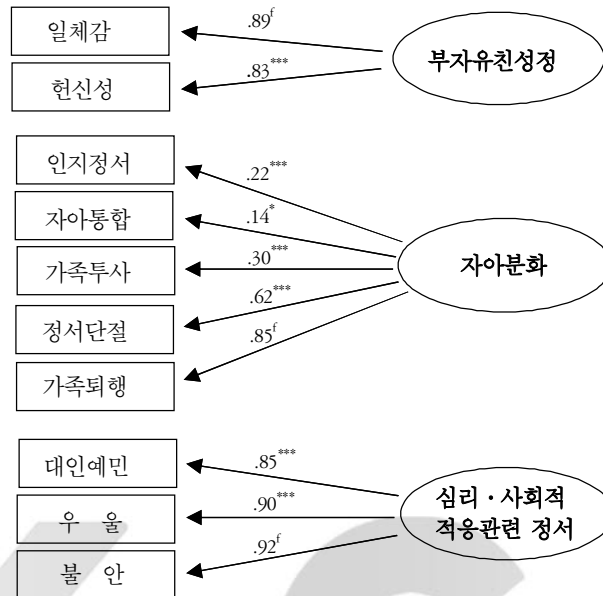
준거변인	집단	설명변인	β	R^2	ΔR^2	F
	남	가족퇴행	-.24**	.09	.09	12.46***
		인지 대 정서기능	-.23**	.14	.05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	여	인지 대 정서기능	-.26**	.11	.11	16.09***
		가족퇴행	-.30***	.18	.07	
	전체	가족퇴행	-.26***	.09	.09	29.04***
		인지 대 정서기능	-.26***	.16	.07	

* $p<.05$ ** $p<.01$ *** $p<.001$

표 4. 검증된 모델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지수	χ^2	df	GFI	AGFI	NFI	CFI	RMSEA
모형	127.06	33*	.923	.871	.912	.932	.096

* $p < .05$



주. 잠재변인간의 양방향적 화살표 생략, f는 고정시킨 특징수.

* $p < .05$, *** $p < .001$

그림 2. 부자유친성정, 자아분화,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의 측정모델

1998). 이를 위해 모든 잠재변인들간의 양방향적 관계를 가정한 측정모델을 구성하고, 측정 모델에 대한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형 검증결과 잠재변인과 측정변인간의 C.R.(Critical Ratio=Estimate/S.E)이 2이상이면 유의하다고 해석하는데(Jöreskog & Sörbom, 1993), 모두 2를 초과하였다.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치를 보면 표 4와 같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적합도 지수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측정모델은 그림 2에 제시되었다.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부자유친성정이 자아분화를 통해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아분화가 부자유친성정과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와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부자유

친성정에서 자아분화로 가는 경로, 자아분화에서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로 가는 경로를 포함하는 완전매개모델(full mediation model)을 연구모델로 하였다. 그리고 부자유친성정에서 자아분화로 가는 경로, 자아분화에서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로 가는 경로 그리고 부자유친성정에서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로 가는 경로를 포함하는 부분매개 모델(partial mediation model)과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가 각각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단순효과모델(simple effect model)을 대안모델로 설정하여 모형간의 비교를 통해 최적모형을 선정하였다.

먼저 부자유친성정에서 자아분화를 거쳐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로 가는 완전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표 5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괜찮은 적합도 지수를 나타냈다. 잠재변인들간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부자유친성정이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beta=.86, p<.001$) 자아분화가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beta=-.35, p<.001$)가 유의하여 자아분화의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대안모델로 설정한 부자유친성정에서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로 가는 경로를 추가한 부분매개모델(partial mediation model)의 경우, $\chi^2(df=32, N=314)=121.92, p<.05, GFI=.928, AGFI=.877, NFI=.916, CFI=.936, RMSEA=.095$ 로 대체로 양호한 적합도 지수를 나타냈다. 그러나 부자유친성정에서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로 가는 경로는 무의미하게 나와, $p>.05$, 적절한 모델로 보기엔 부족하였다.

또한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가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에 각각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단순효과모델(simple effect model)의 분석결과를 보면, $\chi^2(df=33, N=314)= 332.31, p<.05, GFI=.854, AGFI=.756, NFI=.772, CFI=.788, PNFI=.566, RMSEA=.170$ 으로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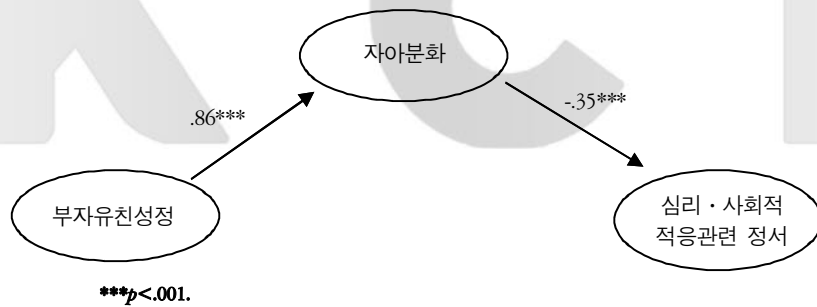


그림 3.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표 5. 측정모델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지수	χ^2	df	GFI	AGFI	NFI	CFI	RMSEA
모형	121.916	32*	.928	.877	.916	.936	.095

*p<.05

나, 대체로 낮은 적합도 지수를 나타냈다. 잠재변인들간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부자유친성정에서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로 가는 경로($\beta=.04, p>.05$)는 무의미하였고, 자아분화에서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로 가는 경로($\beta=-.45, p<.001$)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연구모델 즉 완전매개모델을 대안모델인 부분매개모델이나 단순효과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한 결과 완전매개모델이 자료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먼저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와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부모와의 유대관계 깊을수록 자녀의 자아분화수준은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아분화의 두 가지 측면인 개인 내적 측면과 관계적 측면 중 가족퇴행, 정서단절, 가족투사 등 관계적 측면의 분화와 상관관계가 인지 대 정서기능이나, 자아통합과 같은 개인 내적 측면보다 더 높게 나타나, 관계주의 문화의 특성을 잘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자아분화와의 상관과도 매우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볼 때, 한국문화에서 부모-자녀간의 친밀한 유대관계는 서구문화의 가치기준과 달리, 오히려 자녀의 안정적인 심리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부자유친성정과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와의 상관관계에서도 위와 같은 양상은 이어진다. 예를 들면, 부자유친성정의 하위요인인 일체감, 헌신성이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의 하위요인인 대인예민, 우울, 불안

등과 모두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다(표 1. 참조). 이러한 결과 역시 기존 서구에서의 연구들과 상반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서구의 경우 부모로부터 개별화가 되지 못했을 경우 부적응적 행동이나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지만, 한국문화에서는 이와 같은 해석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일 것이다.

서구 사회에서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행동에서는 자율성을 획득해 나가며,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과 특성을 확립하여, 자기정체감(self-identity)을 수립하는 것이 개인의 중요한 발달과업이 된다. 또한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부모의 자녀교육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생기는데, 이전보다 더 허용적으로 자녀들을 대하며,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키워 나가도록 격려하고 기대한다. 따라서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거리도 증가한다(Conger & Ge, 1999; Paikoff & Brooks-Gunn, 1991; Steinberg, 1981). 그러나 한국의 자녀교육방식에 있어서는 개인의 독립과 자율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나, 성숙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강조하고 교육한다. 즉, 독립과 자율보다는 관계증진과 조화를 강조하고, 관계 속에서 자기를 발견해 나가며, 권리보다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는 문화적 배경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문화적 특징을 보면, 서구문화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모의 통제를 간섭으로 받아들이지만, 한국을 비롯한 동양문화권에서는 관심과 애정의 표시로 인식한다는 것이다(Feldman & Rosenthal, 1991; Kim & Choi, 1994; Rocher & Pettengill, 1985). 따라서 한국의 사회문화체계 내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부

모와의 유대관계나 밀착관계가 서구문화의 인식만큼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자아분화와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와의 상관을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나, 선행연구들과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권미영, 1993; 김보현, 1999; 박유화, 2001; 이혜숙, 1992; 정미란, 1994; 제석봉, 1989; Greene, Hamilton & Rolling, 1986; Hoffman, 1984). 따라서 자아분화 개념은 문화를 초월하여 개인의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자아분화를 이루게 되는 과정에서의 문화적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서구문화에서는 개별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관계성과의 조화를 지향한다면, 한국문화에서는 그 반대의 양태를 띠다고 볼 수 있다. 즉 서구문화에서는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하고, 개별성을 유지하면서 타인과의 친밀관계를 통해 보다 분화 혹은 성숙의 단계로 나아간다면, 한국문화에서는 타인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발달을 도모하고, 상호의존적인 자기관을 발달시키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동양문화권에서 지향하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자기확장(안신호, 1999)이나 사회적 관계체(조궁호, 1999)로서의 성숙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아분화와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에 대한 부자유친성정 하위변인들의 영향과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에 대한 자아분화 하위변인들의 영향에 대한 결과에서는 부자유친성정의 하위변인 가운데, 아버지와의 일체감이 자아분화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어머니와 일체

감, 아버지와의 헌신성 순이었다. 그리고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에 대한 부자유친성정의 영향에서도 아버지와의 일체감이 유일하게 유의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자아분화나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크게 작용하며,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들이 지각하기에 아버지가 자신들을 믿어주고, 존중하고, 자랑스러워한다는 신념 즉 일체감 의식이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은 그 만큼 높아지고, 우울, 불안 및 대인예민 등의 수준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에 대한 자아분화의 영향에 대한 결과에서는 가족퇴행과 인지 대 정서기능이 유의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관계적 측면과 개인의 자기조절 능력과 관련된 내적 측면이 모두 강조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측정오차를 줄이고 미지수 추정에 있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대안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최적모형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 모델(Bentler, 1989)을 통해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구모델인 완전매개모델이 대안모델인 부분매개모델과 단순효과모델 보다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자유친성정이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로 가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자아분화를 경유해서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로 가는 간접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국 고등학생들의 경우 부모와의 심리적 유대관계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분화수준의 증가를 가져오고 증가된 자아분화는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를 줄이는 효과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문화

에 따른 차이로 인해 한 문화권에서 부적응적인 관계양식이나 개인의 특성으로 생각되는 것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앞서 제시하였듯이 한국을 비롯한 동양문화권에서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문제가 자기정체감을 수립하지 못하였거나 독립 혹은 자율성을 획득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起因)한 다기보다는 친밀 관계에서의 정서적 단절이나 관계형성의 미숙(未熟)으로 인한 갈등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따라서 문화를 고려한 상담 적용에 있어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를 비롯한 친밀 관계에서 서구 상담의 주된 접근 방법인 독립이나 분리를 강조하기보다 일체감을 형성하도록 돕고, 관계의 향상을 도모하는 측면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우선되는 요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문화에서의 성숙인격(成熟人格)이 됨은 물론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사회적 적용에 매우 중요한 문화적 요소가 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자유친성정의 측정에 있어 자녀들이 지각한 부자유친성정의 수준만을 측정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측정변인에 대한 피험자들의 지각을 자녀 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를 한 쌍으로 한, 연구를 통해 부모-자녀 상호간의 지각차이에 따른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둘째, 부자유친성정과 심리·사회적 적응 관련 정서간의 관계에 있어 매개변인으로 자아분화 개념 뿐 아니라, 문화적 특성을 보다 잘 나타내는 척도를 개발하여 매개변인으로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셋째, 발달과정의 연구에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종단적 연구방법(longitudinal method)일 것이다. 그러나 종단연구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횡단적 연구방법(cross sectional method)이 사용되고 있고, 본 연구에서도 횡단적 연구로 시행되었는데, 부모-자녀간의 유대 관계의 정도가 한 개인의 발달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나타나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방법의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해 문화적 특수성과 보편성을 검증하고, 문화에 따른 상담접근의 세분화 작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현선 (1995). 부부의 자아분화가 부부부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미영 (1993).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부적응 증상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금장태 (1998). 퇴계의 삶과 철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동직 (1999). 문화적 맥락에서 본 개별성-관계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보경 (2003).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관과 사회불안-공적 자의식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보현 (1999). 고등학생의 자아분화 및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효창, 손영미, 박정열, 최상진 (2000). 발달단계로서의 '철들기'의 문화심리학적 분석.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동계 학술발표회, 30-40.
- 박명석 (1993). *동과 서*. 서울: 탐구당.
- 박유화 (2001). 대학생의 가족응집성 및 자아분화 수준과 대학생활적응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신호 (1999). 한국의 집단주의에 관한 동기-자아개념-행동 모형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121-164.
- 양병화 (1998).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 이장주 (2002). 부자유친성정 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혜숙 (1992).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서울지역 남·녀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미란 (1994).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따른 자아분화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제석봉 (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Bowen의 가족체계 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궁호 (1999). 선진유학에서 도출되는 심리학의 문제. 최상진, 윤호균, 한덕웅, 조궁호, 이수원(편). *동양심리학-서구심리학에 대한 대인 모색*, 31-162, 서울: 지식산업사.
- 조명희, 박수선 (1999).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학생생활연구*, 17(1).
- 최봉영 (1996).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1)*. 서울: 느티나무.
- 최상진 (1994). 한국인의 심정심리학, *사회과학연구 제7집*, 213-237,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최상진 (2000). *한국인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김혜숙, 유승엽 (1994). 부자유친성정과 자녀에 대한 영향력,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초록*, 65- 82.
- 홍세희 (2001). 임상심리학 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최신 연구방법론: 구조 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매개모형과 잠재평균 모형의 분석. 한국심리학회 임상심리학회, 3월 워크숍 자료집.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owen, M. (1971). Family therapy and family group therapy. In H. Laplan & B. Sadock (Eds.), *Comprehensive group psychotherapy*. Baltimore: Williams and Wilkins.
- Bowen, M.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 J. Guerin (Ed.), *Family Therapy*. New York: Gardner Press.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Aronson.
- Breckler, S. J. (1990). Applications of covariance

- structure modeling in psychology: Cause for concern? *Psychological Bulletin*, 107, 260-273.
- Campbell, E., Adams, G., & Dobson, W. (1984). Familial correlates of identity formation in late adolescence; A study predictive utility of connectedness and Individuality in family relation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6), 509-525.
- Conger, R. D., & Ge, X. (1999). Conflict and cohesion in parent-adolescent relations: Changes in emotional expression from early to mid adolescence. In M. J. Cox & J. Brooks-Gunn (Eds.), *Conflict and cohesion in families: Causes and consequences* (pp. 185-206). Mahwah, NJ: Erlbaum.
- Feldman, S. S., & Rosenthal, D. A. (1991). Age expectations of behavioral autonomy in Hong Kong, Australian and American Youth: The influence of family variables and adolescents' valu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6(1), 1-23.
- Greenberg, M. T., Seigel, J. M., & Lietch, C. J., (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12(5), 373-386.
- Greene, G. J., Hamilton, N., & Rolling, M. (1986). Differentiation of self and psychiatric diagnosis: An empirical study. *Family Process*, 8.
- Hoffman, J. A., & Weiss, B. (1987). Family dynamics and presenting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2), 157-163
- Hus, F. (1985). The self cross-cultural perspective. In A. J. Marsella, G. De Vos., & F. L. K. Hsu, *Culture and self*. New York: Tavistock.
- Josselson, R. (1988). *Finding herself. Pathway to identity development in woman*. San Francisco: Jossey-Bass.
- Kagitçibasi, Ç. (1990) Family and socialization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A model of change. In J. J. Berman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9.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Kim, C. D., Yoon, I., & Choi, I. J. (2001).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Mature Personality. Paper presented at the 4th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Melbourne, Australia.
- Kim, U. C., & Choi, S. H. (1994).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child development: A Korean perspective. In P. M. Greenfield & R. R. Cocking (Eds.), *Cross-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Laurent, (1993). 개인주의의 역사. [Histoire de l'individualisme]. (김용민 역). 서울: 한길사.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al variation in the self-concept. In J. Strauss & G. R. Goethals(Eds.), *The self: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New York: Springer-Verlag.
- Springer-Verlag. Murphy, E. B., Silber, G. V., & Greenberg, I. (1963). Development of Autonomy an Parent-Child Interaction in Late 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33. 643-652.
- Paikoff, R. L., & Brooks-Gunn, J. (1991). Do parent-child relationships change at puberty?

- Psychological Bulletin*, 110, 47-66.
- Rocher, R. P., & Pettengill, S.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the Korean adolescent. *Child Development*, 56, 524-528.
- Steinberg, L. D. (1981). Transformation in family relations at puberty, *Development Psychology*, 17(6), 833-840.
- Stierlin, H. (1974). *Separating Parents and Adolescents*. New York: Quadrangle.
- Tamura, T., & Lau, A. (1992). Connectedness Versus Separateness: Applicability of Family Therapy to Japanese Families. *Family Process*, 31, 319-340.
- 원 고 접 수 일 : 2005. 8. 31
수정원고접수일 : 2005. 10. 11
게 재 결 정 일 : 2005. 11. 5

K C I

The Influence of Cultural Uniqueness of Parent-Children Relationship on Adolescent's Mental Health: 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Bu-Ja-Yu-Chin-Sung-Cheong)

In Jae Choi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This study explored an alternative or a more appropriate approach in counseling regarding multiple cultural problems. Participants for this study were 314 high school students (159 males and 155 femal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 and self-differentiation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hereas 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 and psycho-social adjustment emotion were negatively associated. Furthermore, self-differentiation and psycho-social adjustment emotion also showe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Second, in the subsidiary variable of 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 the oneness variable of a father, a mother and the self-sacrifice variable of a father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On the other hand, in the psycho-social adjustment emotion, only the oneness variable with a father was found to be a significant predictor. Also, in the effect of the subsidiary variable of self-differentiation affecting psycho-social adjustment emotion, the family regression and the variable of intelligence/emotion function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Last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 and psycho-social adjustment emotion, the full mediation model showed better fit to the data than the partial mediation model or the simple effect model. Thus, in 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 only the indirect path affecting psycho-social adjustment emotion through self-differentiation was significant, whereas the direct path affecting psycho-social adjustment emotion was not.

Key words : parent-child relationship, self-differentiation, cultural psychology, mental-health